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38번]

[지문 분석]

1문단

①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②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③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④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①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 늘 말하지만 첫 문장은 중요해요. 이 글에서도 첫 문장에서 이 글의 제재가 드러났어요. 바로 [검사용 키트]였죠. 다음 문장부터 [키트]라는 제재를 어떻게 화제로 구체화하는지에 주목해야겠죠. 내용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러한 키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건강 상태 진단 or 범죄 현장에서 혈흔 조사]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야 해요.

② 키트 제작에는 /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 [(**적은 비용**으로 / **쉽고** / **빠르고** /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 앞서 말한 제재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죠. 즉 [키트 -> 키트 제작]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죠. 늘 말하지만 첫 문단을 천천히 쪼개 읽어가면서 이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제발. 해당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 정보는 크게 2가지입니다. 보통은 이 문장부터 굵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쪼개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덩어리째 뭉개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수식 구로 인해 전체 독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해당 문장을 굵었다면 [1문단 - ④]부터 뜨기 시작하며, 4문단에서 제시되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 정확성도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읽었네요.

1. 키트 제작에는 /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군" 라는 작은 생각 하나가 뒤에 [항원 - 항체 반응]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읽게 만들어주겠죠.

2. [(**적은 비용**으로 / **쉽고** / **빠르고** /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적은 비용**으로 / **쉽고** / **빠르고** /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어야 함]과 같이 정확하게 쪼개 읽어야 합니다. 뭉개지 마세요. 실제로 LFIA는 [휴대성이 높고 = 쉽고 / 분석 시간이 짧은 = 빠르고]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키트였죠. 4문단에서는 그러한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 -> 민감도, 특이도로 구체화됨]의 흐름이었죠.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는 어디로? 그렇죠. 늘 그렇듯 38번의 <보기>의 내용으로 들어갔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인해 독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③ **이러한 필요**에 따라 /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 앞서 말한 [키트 제작]으로 구체화된 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

**한 필요]**라는 지시어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또한 이 문장에서 [키트]가 무엇인지, [키트와 시료]와 어떤 관계인지 등과 같이 명확한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해주어야 해요. 해당 문장을 잘 읽었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파악되었어야 합니다.

1. [**적은 비용,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제작 요구 =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 = 적용된 과학적 원리]을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음.

2. 시료에는 특정 성분이 존재 / 키트는 그러한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용됨 / 그러한 분석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적 원리가 [항원 항체 반응]

당연히 그렇다면 다음 문장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줄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모르는 개념인데 이 글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또한 만약 [시료 =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라는 어휘를 몰랐다면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EBS 수특 과학지문에 있는 어휘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어휘예요. 몰랐다면 사전 찾아봐야 하죠.

④ **항원-항체 반응**은 /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 역시나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당연한 거죠. 이러한 반응을 이용한 키트가 제작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러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죠. 따라서 해당 문장을 잘 쪼개서 파악했어야 해요.

[항원 항체 반응] = [(항원) +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이 부분을 읽고 그냥 "음 항원 항체 반응이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키트]가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도 [항원 =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 [항체 = 키트에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읽었다면 뒷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했겠죠.

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 (휴대성이 높고 / 분석 시간이 짧은) /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 정확하게 쪼개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LFIA를 이용한 키트의 특징이죠. 뭐죠? 그래요.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다]는 거죠. 즉 [쉽고,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또한 그러한 키트들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휴대성이 높고 + 분석 시간이 짧은 -> LFIA를 이용한 키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해 키트의 [항체]가 결합하여 성분을 분석해내게 될 것인데, 그러한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와 같은 다양한 키트들이 개발될 수 있는 거죠.

1문단 정리

결국 1문단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키트의 제작 -> 항원 항체 반응 이용 -> LFIA를 이용한 키트]

와 같은 흐름이 남았으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문단에서는 [LFIA 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예측을 하면서 2문단으로 들어가셨으면 됩니다. :)

2문단

①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②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③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④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⑥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⑦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⑧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⑨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LFIA 키트를 이용하면 /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 (액상의 시료에서 /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에선 1문단에서 구체화한 [LFIA를 이용한 키트]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네요. 해당 문장을 잘 읽었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1. LFIA키트에는 선이 존재함 + LFIA키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시료는 액상 시료임.
- 2.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성분 = 목표 성분
- 3. LFIA키트의 선을 이용해 그러한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음.

그렇다면 다음 문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LFIA키트가 선을 이용해 그러한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죠.

② LFIA 키트는 /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③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 반응막을 지나 /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④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⑤ 표지 물질은 /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⑥ 일반적으로 /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 항체들이 /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 여기서부터 당황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문단부터 글이 안 읽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② 문장 때문입니다. 해당 문장은 LFIA키트의 구조를 설명하는 문장이었고, 아마도 첫 문장을 구체화해서 설명하기 위해 먼저 그러한 키트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것이겠죠. 이 문장을 읽고 LFIA 구조가 머리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서라도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특징과 역할을 제시하는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해당 문장을 뭉개버리니 당연히 다음 문장들이 다 떠 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독해 속도를 늦추고 간단한 그림으로라도 처리

해주고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아요.

[LFIA키트] =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 = [(시료 패드 -> 결합 패드 -> 반응막 -> 흡수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패드
1. 시료 흡수	1. 복합체 존재 (표지물질 + 특정물질) 2. 시료 패드에서 이동한 시료와 복합체가 함께 이동			1. 여분의 시료 흡수
		검사선	표준선	

즉 ② ~ ⑥ 을 잘 읽었다면 위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야 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가 처리되었어야 합니다.

- 1. LFIA의 키트는 4개의 구역으로 되어있음
- 2. 시료는 [시료패드 -> 결합패드 -> 반응막 -> 흡수패드]로 이동
- 3. 결합패드에는 [복합체]가 있음

[복합체 = 표지물질 + 특정물질]  
->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냄  
-> 특정 물질의 종류는 [키트 방식에 따라] 달라짐

- 4. 이러한 복합체는 시료 패드에서 흡수되어 이동한 시료와 함께 반응막으로 이동함.
- 5. 반응막에는 [항체]로 된 두 가닥의 선이 있음

[검사선 =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  
[표준선 = 다른 가닥]

중요한 것은 검사선의 두 선 모두 [항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읽어가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키트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시료의 목표 성분을 검출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항체 = 검사선 / 표준선]은 목표 성분의 검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특정 물질]이 키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읽어가 갈 때는 중요한 정보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3문단을 읽어가면서는 돌아와서 확인해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⑦ 표지 물질이 /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 발색 반응에 의해 / 반응선이 나타난다.

-> 뭉개지 말고 쪼개서 파악해주세요. 복합체는 시료와 함께 결합 패드에서 반응막으로 이동했죠. 그러한 복합체 중 [표지 물질]이 [검사선, 표준선에 놓이게 되면 -> 발색 반응이 일어남 -> 반응선이 나타남]과 같이 독해 속도를 늦추고 쪼개서 파악하고 갔어야 합니다.

⑧ (검사선이 발색되어 /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⑨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지 물질이 (검사선)과 (반응선)에 놓일 때 나타나는 각각의 반응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들이었죠. [검사선 -> 목표 성분의 유무를 나타냄], [표준선 ->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낸다는 거죠. [검사선 <-> 표준선]을 뭉개고 갔으면 안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급하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쪼개서 읽어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진짜로.

또한 ⑧문장을 읽고 의문이 들었어야 정상입니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응선이 나타나는 게 성분이 있다는 것인지, 그 없다는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을 것 같네요. 만약 여기서 들지 않았다면 3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서라도 돌아와서 확인해주고 갔어야 해요.

2문단 정리

-> 2문단을 읽고 1문단의 흐름과 연결해 적어도 아래와 같은 흐름이 잡혀야 합니다.

[LFIA키트 -> 선을 통해 시료의 목표 성분의 유무 확인 가능 -> 그러한 LFIA의 구조 및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 구체화]

또한 정확하게 어떻게 검사선과 반응선이 발색하게 되는 것인지,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목표 성분의 유무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정도를 해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다만 그런 예측을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흐름 정도만 파악하고 3문단으로 넘어가셨어도 매우 좋습니다.

3문단

①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②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③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④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⑥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⑦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⑧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④ LFIA 키트는 /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 (방식에 따라 /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 다르다

-> 매우 중요한 문장이자, 2~3문단을 연결하는 뼈대가 되는 문장이었어요. 2문단에서 [검사선의 발색 -> 시료에 목표 성분의 유무]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다고 했고, 3문단에서는 그러한 발색이 [유]와 [무]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다만 그 의미가 ㉠과 ㉡과 같은 [키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더 크게 보면 2문단에서 [특정 물질 -> 키트 방식에 따라 다르다]와 연결시켜서 파악했어야 하는 문장이었죠. 실제로 3문단의 핵심 내용은 [LFIA -> 방식에 따라 -> 복합체의 특정 물질이 다름 ->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름]이었으니까요.

② 직접 방식에서 /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③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 목표 성분은 /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④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 ①에서 [키트 방식에 따라 ->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를 제시하고, ②부터는 ㉠과 ㉡이라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과 같은 [직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다만 학생들은 그냥 ㉠과 ㉡과 같은 [구분]자체에 집착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이라는 방식에서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 무엇을 의미하는가]죠. 즉 [목표 성분의 유 or 무]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읽고 나서 [키트의 방식 -> 복합체의 특정 물질이 다름 -> 그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의 흐름인 것까지 파악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②~④를 정리하면

- ㉠직접 방식

1. 복합체의 포함된 특정 물질 =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2.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다면 -> 특정 물질과 일차 결합 -> 검사선의 항체와 그 후에 결합
3. 따라서 [검사선의 발색 = 시료에 목표 성분 O] / [검사선의 발색X = 시료에 목표 성분 X]

가 되겠네요. 중요한 흐름만 남기면 [㉠ -> 특정 물질 = 항체 -> 검사선 발색의 의미 = 목표 성분 존재]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정보는 이해하고 넘어간 뒤 물어보면 찾으러 오셔도 무방합니다.

⑤ 한편 / 경쟁 방식에서 /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 목표 성분 자체)이다. ⑥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⑦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 시료의 목표 성분은 /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 ②~④와 같은 흐름이었고 마찬가지로 [방식 -> 특정 물질 -> 검사선의 발색의 의미]에 주목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⑤~⑦을 정리하면

- ㉡경쟁 방식

1. 복합체의 포함된 특정 물질 = 목표 성분 자체 = 항원
2.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다면 -> 시료의 목표 성분과 특정 물질이 경쟁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 검사선 발색 X
3. 따라서 [검사선의 발색X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음] / [검사선의 발색O = 시료에 목표 성분X or 충분히 많지 않음]

⑧ 직접 방식은 /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⑦까지가 연결되는 흐름이었다면 해당 문장은 단편적으로 던져진 정보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 제시된 정보만 분류해놓고 넘어갔다 물어보면 찾으러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제시되는 정보는 반드시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왜?]인지는 모르지만 제시된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 문단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

3문단 정리

3문단을 읽고 2문단의 흐름과 연결해 적어도 아래와 같은 흐름이 남아야 해요

[LFIAKIT의 방식에 따른 -> **검사선의 발색 여부의 의미 차이**]

4문단

①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②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③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④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⑤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⑥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⑦**현실에서 위양성이 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④ 한편, 검사용 키트는 /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 **정확성**도 중요하다.  
 ②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 2~3문단에서 [휴대성이 높고 + 분석 시간이 짧은 -> LFIA]에 대한 흐름이 끝나고, 4문단부터는 키트의 [정확성]으로 세부적인 흐름이 전환되었어요. 따라서 앞에서 쌓인 정보가 많다고 느낀 분들은 문제로 가서 제시된 정보들을 처리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키트의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만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해당 문장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③ 키트가 /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④**이때**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⑤**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 **음성**이라고 한다. ⑥**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 제시된 인과관 잘 처리했다면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 어렵다면 간단하게 메모해두셨으면 좋았겠네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키트 판정	실제 존재 여부
양성	O	O -> <b>진양성</b>
		X -> <b>위양성</b>
음성	X	X -> <b>진음성</b>
		O -> <b>위음성</b>

⑦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 3문단의 마지막 정보처럼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죠. 역시나 이해하고 넘어간 다음 선지에서 물어보면 판별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양성과 음성과 관련된 분류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양성과 음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정확도]와 관련되기 때문이죠. 4문단에서는 그러한 양성 과 음성에 대한 판정이 구체적으로 [정확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제시되지 않았죠. 따라서 5문단에서는 이러한 4문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양성, 음성 -> 정확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화할 가능성 높겠죠.

4문단 정리

-> 2~3문단에 걸쳐서 [LFIA 키트]와 관련된 흐름이 끝나고 4문단부터는 [키트의 정확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면 됩니다.

[검사용 키트의 정확도 -> 양성 과 음성과 관련된 정의]

5문단

①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②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③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④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⑤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①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 (정확도)란 / (시료를 분석할 때 /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②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정리하면

[정확도 =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

[정확도] = [민감도] + [특이도]

정도가 되겠죠.

③ (민감도)는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④ (특이도)는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었죠. 물론 단순 정보처리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다만 4문단에서 제시된 흐름과 연결해 생각해 주었다면 37번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또한 [**비율**]이라는 발문에 주목했다면 [37번]에서 왜 [**위양성**]이 아니라, [**위음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민감도] = [실제 존재 O -> 키트가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 **진양성**  
 [특이도] = [실제 존재 X -> 키트가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 = **진음성**

따라서 키트가 정확도가 높기 위한 경우는 아래와 같겠죠.

[민감도가 높은 경우]

1) 진양성의 **비율**이 높은 경우 = 위음성의 **비율**이 낮은 경우

[특이도가 높은 경우]

1) 진음성의 **비율**이 높은 경우 = 위양성의 **비율**이 낮은 경우

핵심은 [진양성 + 위음성] / [진음성 + 위양성]이 100%가 된다는 거죠. 민감도와 특이도는 [비율]이니까요. 37번에서 단순히 [실제로 존재할 때까지]가 근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때 -> 판정 결과 -> 진양성 or 위음성] /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 판정 결과 -> 진음성 or 위양성]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매우 훌륭해요. 다만 수험장에서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37번의 선지 자체를 깔끔하게 배려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구요.

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 상황에 따라 /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키트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뭔가 선지를 위한 문장이 느낌이 나네요. 사후적인 게 아니라, 문장 간의 연결성의 어색함에서 느껴지는 단서인 거죠. 구체화된 정보도 아니고,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선지나 <보기> 문제를 위한 단서로 제시되는 정보들입니다.

5문단 정리

-> 4~5문단이 하나의 흐름이었죠. 결국은 [키트의 정확도] 이야기를 하는 문단들이었어요. 4문단에서 [정확도]를 제시하고, 먼저 [양성 / 음성]에 대해서 선행 개념을 설명한 뒤 5문단에서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흐름이었죠.

[키트의 정확도 -> 양성, 음성 설명 -> 민감도와 특이도 설명]

전체 구조 정리

1문단 -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LFIA

2문단~3문단 - 선을 통해 검출할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LIFA

4문단~5문단 - 검사용 키트의 정확도의 중요성

[문제 해설]

35번 : ③

-> 답은 맞추기 쉬웠어도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는 게 쉽지 않았을 문제 같아요. 특히 ⑤선지는 매우 좋은 선지라고 생각하며, 잘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③선지의 판별의 핵심은 [검사선 <-> 표준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읽어줬는지가 되겠네요. LFIA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더라도 표준선은 발색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하지만, 표준선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니까요. 즉 목표 성분이 없어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표준선은 발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①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의 공통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다만 읽으면서 명확하게 키트의 구조를 4개의 영역으로 쪼개고,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주셨다면 굳이 돌아가서 찾지 않더라도 빠르게 소거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로 이동한다고 했죠. 또한 그러한 결합 패드에서는 [여분의 시료]가 흡수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②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이 정보였어요. 만약 돌아가서 찾았다면 독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LFIA키트는 항원 - 항체 반응을 이용한다고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선의 항체 or 특정 물질의 항체]가 [시료에 있는 목표 성분 =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면역 반응인 [항원 - 항체 반응]을 통해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어요. 적절해요.

④

->쉽지 않은 선지였어요. [표지 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줬어야 헛갈리지 않았겠죠. 2문단의 [표지 물질 -> 발색 반응에 의해 -> 색깔을 뿜] +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 발색 반응에 의해 -> 반응선이 나타남]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줬어야 합니다. 즉 [표지 물질이 -> 검사선이나 반응선에 놓이면 -> 발색 반응에 의해서 -> 반응선을 뿜 -> 목표 성분의 유무를 나타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 물질이 없다면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검사선에 놓였을 때 발색을 통한 반응선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다면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겠죠. 적절해요.

⑤

->이 부분을 [위양성]을 통해서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근거는 아닙니다. [위양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음 -> 직접 방식의 위양성 -> 목표 성분X -> 검사선은 발색]이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당 선지에서 더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경쟁 방식에서 검사선의 발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선지는 [경쟁 방식 -> 검사선의 발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선지라는 거죠. 그게 3문단의 핵심 정보였으니까요. 3문단에 따르면 [경쟁 방식 -> (특정 물질 = 목표 성분 자체) -> 따라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 검사선이 발색X]이죠. 즉 이 부분을 통해 경쟁 방식에서 [검사선의 발색X -> 목표 성분의 O]를 파악할 수 있고, 간단한 추론을 통해 [검사선이 발색O -> 목표 성분이 없거나, 충분히 많지 않음]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묻고자 하는 선지였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경쟁 방식의 경우 -> 목표 성분이 X or 충분히 많지 않으면 -> 검사선은 발색]이므로, LFIA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쟁 방식]에서는 검사선이 발색할 수 있겠죠. 적절해요. :)

36번 : ①

->오히려 손가락을 걸었다면 수월했을 것이고, 나머지 선지를 확인했다면 명확하게 소거하지 못해서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해당 선지는 ㉠과 ㉡에서 [특정 물질]의 차이로 인해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은 [직접 방식 -> 특정 물질 = 항체 ->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항체가 일차 결합 -> 그 후 시료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이었죠. 반면 ㉡은 [경쟁 방식 -> 특정 물질 = 목표 성분 자체 -> 시료의 목표 성분과 특정 물질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경쟁]이었죠. 따라서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복합체의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을 하겠죠. 적절해요.

②

->㉠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는 것은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특정 물질 = 항체]가 일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 후에 [시료의 목표 성분]과 [검사선의 항체]가 결합을 했다는 의미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선지 발문의 [㉡과 달리]를 처리하는 것이 까다로우니 보도록 합시다. ㉡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는 것의 의미는 지문에 따르면 [검사선이 발색X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음을 확인]했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③

->㉠과 ㉡모두 [검사선 -> 표준선]순으로 도달하겠죠.

④

->㉠이든 ㉡이든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반응막]에 적어 **오르비클래스 후국일**

도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은 나타나겠죠. 이 선지의 핵심은 [검사선]과 [표준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읽었는지가 되겠네요. 늘 말하지만 문개지 말고 정확하게 쪼개 읽어주도록 합니다.

⑤  
->표지 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단번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선지여야 합니다. ㉠이든 ㉡이든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죠. 표지 물질을 발색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냄으로써 반응선이 나타나게 해주는 역할이었죠. ㉠은 [목표 성분 - 복합체의 특정 물질인 항체]이, ㉡은 [목표 성분 - 검사선의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37번 : ④

->교수님들의 역설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발문과 선지 배열이었죠.

A가 적을수록 -> 민감도가 높다  
B가 많을수록 -> 특이도가 높다

지문 분석을 잘 보셨다면 A에 왜 [위양성]이 아니라, [위음성]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B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민감도 -> 실제로 존재할 때 ->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 = 진양성의 "비율"]이라는 거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진양성이 아닌 경우에 민감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존재O -> 없다고 판정 = 위음성]이죠. 즉 100번 중 60번이 진양성이라면, 40번은 위음성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감도가 높기 위해서는 [진양성이 많을수록 = 위음성이 적을수록]**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특이도가 높기 위해서는 [진음성이 많을수록 = 위양성이 적을수록]**인 경우가 되야겠죠.

38번 : ②

-><보기>는 늘 말하지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보기>에서 제시된 정보가 읽었던 지문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기를 원하는지를 해석해내는 거죠. 해당 보기에서의 핵심은

<보기>

1. 살모렐라균 = 병원성 세균 = 목표 성분  
-> 직접 경쟁 방식 이용한 ㉠ -> (특정 물질 = 항체)

2.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살모렐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  
-> 민감도가 중요함.

정도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제시된 선지를 보고 판별해서도 무방합니다. ㉠은 [직접 방식을 이용 -> 특정 물질 = 항체를 이용]이 되겠죠. 따라서 해당 선지의 [표지 물질에 살모렐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는 [경쟁 방식]에 관한 선지니까요. 즉 해당 선지 발문을 읽으면서 [살모렐라균 =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성분 = 특정 물질 = 목표 성분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해요. 그래야 해당 선지는 [직접 방식]이 아니라, [경쟁 방식]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 -> 직접 경쟁 방식 ->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성분은 (살모렐라균 =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되겠죠.

①

->㉡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렐라균 =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야 이러한 항체를 이용한 [항원 - 항체 반응]을 통해서 ㉡와 같은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겠죠. 적절해요.

③

->지문에 따르면 LFIA키트로 검출할 수 있는 시료는 [액상의] 키트였죠. 다만 이를 일대일 대응으로 찾기 보다는 글을 읽어가면서 [시료가 -> 키트에서 이동함 -> 액상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었다면 더 수월하게 지웠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안 되었다면 [시료 -> 액상의 시료]와 같이 **조건**이 붙는 경우는 선지에서 늘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넘어갔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

④

-><보기>에 따르면 살모렐라균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속도가 빨라서 다량의 시료 중 [살모렐라균]만을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그러한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개발된 것이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감도 = 실제 존재 -> 양성이라고 판별한 비율]이죠.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살모렐라균만을 신속하게 양성으로 판별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이도 < 민감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⑤

->매우 좋은 선지였고, 일대일 대응으로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선지에 해당해요. 선지를 읽어보면 [살모렐라균이 검출되었다고 ㉡를 이용한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이죠. 여기서 해당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2가지가 될 수 있겠죠.

1. ㉠이 맞는 경우 = 기존 분석법이 틀린 경우 = 실제로 존재O  
-> 실제로 존재O -> 기존 분석법이 없다고 판정 -> 위음성

2. ㉠이 틀린 경우 = 기존 분석법이 맞은 경우 = 실제로 존재X  
-> 실제로 존재X -> ㉠이 있다고 판정 -> 위양성

지문에 따르면 위음성과 위양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적절하네요. 다만 그냥 근거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이 선지 판별의 근거로 사용이 되겠다는 것을 인식**해주는 겁니다. 큰 흐름에는 묶여있지만 세부적인 흐름에 연결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 없이 제시되는 문장의 경우 위와 같이 [선지 판별]의 근거나 <보기> 해석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기억해두도록 해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21번]

[지문 분석]

1문단

①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②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③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④ [(17세기 초부터 /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 잘 쪼개 읽어줬다면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서학의 과학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가" 정도의 생각이 들면서 읽었다면 좋았겠네요.

②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 미미하였다. ③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 ②~③을 읽고 나서는 구체화된 화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어야 합니다. 첫 문장을 읽을 때는 [서양 과학 지식]이 중요해보이지만 실제로 1문단의 나머지 문장을 잘 읽었다면 그러한 과학 지식 중 [서양의 의학의 영향력 -> 미미]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합니다.

또한 [서양의 과학 지식] <-> [서양의 의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서양의 과학 지식 중] -> [천문.지리 지식 <-> 의학 지식]으로 나눠주는 게 정보의 층위 상 조금 더 적절하겠죠. 즉 서양의 과학 지식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지만 그러한 과학 지식 중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미미]했다는 게 1문단에서 제시하는 구체화된 화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다음 문단부터는 그러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정도만 했으면 됩니다.

1문단 정리

[서양 과학 지식 중 ->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미미]

2문단

①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②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살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③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④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⑥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 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① **이런 가운데** /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② 그는 / 「서국의」라는 글에서 / (아담 살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 채록하면서 /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 ①문장을 정확하게 쪼개 읽었어야 합니다.

1. 이런 가운데 = [서양 과학 지식 중 서양 의학에 영향력은 미미 = 서양 의학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2. 이익은 주목할 만 함.

-> 우리도 읽어가면서 주목해줘야겠죠.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서양 의학과 관련해 다른 유학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겠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②와 같은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②를 잘 쪼개 읽었다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1. 아담 살이 쓴 책 = 주제군징

2. 이익은 -> 서국의란 글에서 -> 그러한 주제군징의 일부를 [채록 = 필요한 자료를 적거나 녹음함]하면서 -> 자신의 생각을 제시함.

따라서 아마도 다음 문장부터는 이익이 채록한 [주제군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익이 어떠한 생각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죠.

③ 「주제군징」에는 /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④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 실려 있었다.

-> 무엇을 말하고 있는 문장들이죠. 그래요. [주제군징]이요. 결국 정리하면 [주제군징]에는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적 성과 ->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이 아니라,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 로마 시대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늘 말하지만 A가 아니라 B라고 말하는 부분은 늘 중요해요. B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A와 비교하면서 B를 인식해주도록 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주제군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①에서 [이익 -> 주제군징 채록 -> 자신의 생각을 제시]를 언급한 후 이익이 채록한 주제군징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뒤에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익은 어떤 생각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⑥ (뇌가 /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 이익은 /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 (지각 활동은 / 심장이 주관 한다는) =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 고수하였다.

-> ⑤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2문단의 뼈대가 되는 문장이었죠. ②의 문장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죠. 즉 [이익 -> 주제군징 채록 -> 자신의 생각 제시] =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의 우수성 인정 -> 부분적 수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⑥은 그러한 [이익이 제시한 생각 =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인정 + 부분적 수용]을 구체화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구요.

아담 살		부분적 수용 ->	이익	
뇌			뇌	심장
몸의 운동	지각 활동		몸의 운동	지각 활동

2문단 정리

[이익 ->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의 우수성을 인정 -> 부분적 수용]

3문단

①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②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③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④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⑥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① 이익 이후에도 /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 두드러지지 않았다. ② 당시 유학자들은 /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③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 (지구가 둥글다거나 / 움직인다는) =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④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 걸림돌이었다.

-> ①문장만 잘 읽었다면 ②~④는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원인]에 대한 것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 따라서 ②~④와 같이 단순 나열되는 정보들은 간단한 일치 수준에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찾는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읽어 줬으면 됩니다. 즉 힘을 빼고 읽어도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⑤ 그러던 중 /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 [(당대 서양에서 /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⑥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 ⑤부터는 ④와 흐름이 달라지는 문장이죠. 따라서 여기부터는 다시 힘을 줘서 쪼개가면서 읽어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2문단에서 [이익]에 대해서 말했다면 3문단에서는 그 이후에도 [서양 의학 영향력 미미 -> 원인]을 제시한 후 [최한기 -> 인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 -> 문제의식을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⑥은 ⑤에서 언급한 [본격화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구요. 정리하면 아래와 내용이죠.

1. (당대 서양 주류를 이루던) 최신 의학의 성과를 담은 -> 흠손의 책
2. 최한기 -> 그러한 흠손의 책을 접함 -> 그 후 해부학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 -> 어떻게 본격화? ->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던 것과는 다르게 -> 최한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함

또한 읽어가면서 [최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시된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어줬다면 더욱 좋았겠죠. 평가원은 늘 그렇듯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선지로 구성하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최한기의 주장을 구체

화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겠죠. :)

3문단 정리

[이익 이후에도 -> 서양 의학 영향력 미미 + 원인 -> 기존의 인체관에 대한 최한기의 문제의식]

4문단

①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②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③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 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④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⑥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⑦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⑧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①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 4문단의 핵심 문장이었죠. 3문단에서 기존의 인체관에 대한 최한기의 문제의식 제기를 제시하고, 4문단에서는 그러한 최한기의 인체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인체관의 핵심은 [몸기계]라는 개념인 거죠.

② 그는 /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 파악하고 있었다. ③ 이러한 생각은 / (『전체신론』 등) =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 더 분명해져서 /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 인체가 /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④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 정리하면

1. 최한기 -> 몸 기계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도 인체를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음 -> 이러한 생각은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분명해짐 -> 그게 '몸기계' -> 외부 동력X -> 자발적인 운동을 함

2. 1.과 같은 최한기의 인체관은 [인체 + 신기]의 결과였음.

이 되겠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한기의 인체관 -> 인체 = 기계 -> 흠손의 저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짐 -> 몸기계 -> 인체 + 신기의 결과]라는 거죠.

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⑥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⑦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 (창조주와 같은) =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⑧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 (인체를 오르비클래스 후국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제시되는 지시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읽어줬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④까지 몸을 기계로 바라보는 인체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⑤부터는 그렇게 [몸 = 기계]로 바라볼 때 발생하는 [무한소급]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흡슨]과 [최한기]가 했던 주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인체 = 기계] ->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무한 소급의 문제 발생]

1. 흡슨 -> 기독교적 세계관 긍정 -> (최초 원인 = 창조주)
2. 최한기 -> 기독교적 세계관 부정 -> (최초 원인 = 신기)

4문단 정리

[최한기의 인체관 = 몸기계 -> 무한소급 문제 -> 신기로 해결]

5문단

① 최한기는 『전체신문』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②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흡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③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문』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최한기는 / 「전체신문」에 수록된, /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 인정하였다. ②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 (흡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 뇌주지각설은 /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③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문」의 견해를 부정하고, /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리하면 [최한기 -> 흡슨의 뇌주지각설의 관심 BUT 불충분 ->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함을 주장]했다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신체 운동]과 [지각 주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나눠서 파악했어야 하죠.

흡슨 -> 뇌주지각설 -> [뇌 = 운동 + 지각 주관]  
 최한기 -> 심주지각설 -> [뇌 - 운동], [심 - 지각 주관]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가면서 읽되 추가로 결국은 [최한기의 인체관]이라는 큰 흐름아래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최한기가 주장한 [심주지각설]을 앞서 제시된 [이익] 역시 받아들였다 는 것을 떠올려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죠.

5문단 정리

[최한기의 인체관 -> 흡슨의 뇌주지각설 부정 -> 심주지각설 주장]

6문단

①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②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③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④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⑥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⑦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⑧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②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 (‘심’)을 =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 5문단에서 최한기가 흡슨의 뇌주지각설을 부정하고, 심주지각설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6문단에서는 그러한 심주지각설이 앞서 이익이 고수했던 전통적인 심주지각설과는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 차이점은 [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기존 심주지각설 -> [심 = 심장]  
 최한기의 심주지각설 -> [심 = 신기의 심]

③ 그에 따르면, (신기)는 /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 몸을 구성하면서 /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④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 그 중심이 ‘심’이다. 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⑥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최한기 -> 심주지각설 -> 심 = 신기의 심]을 앞서 제시하고, 그러한 [신기]와 [신기의 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1. 신기 =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 인체기관X +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 유동적인 성질을 지님
2. 그러한 신기의 중심 = 심
3.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높은 밀도로 몰림 -> 그러한 신기의 이동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 심이 이동하기도 함 ->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⑦ 그는 /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⑧ 신기는 / 한 몸을 주관하며 /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신기와 신기의 중심인 심을 설명한 뒤 ㉗~㉘에서는 그러한 [신기]가 어떻게 [지각을 주관]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1. 경험 이전의 신기 -> 지각 내용 내포 X
2.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 신기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
3. 신기는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 지각 내용을 조정 + 그러한 작용에 적응 ->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 O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최한기의 심주지각설 -> 심 = 신기의 심 -> 그러한 심이 지각 활동을 주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문단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됩니다.

6문단 정리

[최한기의 심주지각설 -> 심 = 신기의 심 -> 지각 활동 주관]

7문단

①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②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최한기의 인체관은 /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②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 문단은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3~6문단에 걸쳐 제시한 [최한기의 인체관 -> 몸기계 -> 신기를 바탕으로 한 심주지각설]을 정리하고 그의 의의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마무리했어요.

7문단 정리

[최한기의 인체관의 특징과 의의]

전체 구조 정리

1문단 - 서양 의학의 미미한 영향력

2문단 - 서양 의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이익의 인체관

3문단 - 서양 의학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 + 인체관에 대한 최한기의 문제의식

4~6문단 - 최한기의 인체관

7문단 - 최한기의 인체관의 의의

[문제 해설]

16번 : ②

-> 전개 방식 문제는 바로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시적인 내용 이해와 더불어 문단간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지문을 읽어가면서 항상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문단이 왜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문단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 의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읽어야 해요. 해당 지문은 [서학 수용 -> 서학 의학 -> 인체관에 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었고, [아담 샬 -> 이익] -> [흡슨 -> 최한기]와 같이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②이 되겠네요.

① ->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X / 서양과 대조하여X]죠. 서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어요.

③ ->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X

④ -> [우리나라의 근대 인체관X] /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 -> 새로운 결론X]

⑤ -> 서학이 조선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죠.

17번 : ④

-> 흡슨은 자신이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담 샬은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소개한 게 아니죠. 2문단 [아담 샬이 쓴 주세균징 -> 당대 서양 의학의 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음 ->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음]에서 확인 가능해요. 다만 일대일 대응으로 찾기보다는 지문을 읽어가면서 [아담 샬 -> 이익] <-> [흡슨 -> 최한기]를 비교하면서 읽어주셨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① -> 4문단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 등 흡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 하면서도 ~]에서 확인 가능하죠. 즉 최한기는 흡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고, 흡슨의 저서를 통해 그 생각이 더 분명해졌다는 말이므로 적절해요.

②,③ -> 아담 샬, 이익, 흡슨, 최한기 모두 [뇌 - 신체 운동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죠. 다만 아담 샬과 흡슨은 [뇌 - 지각 활동 주관]이라고 생각한 반면, 이익과 최한기는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익 : 심장 - 지각 활동 주관], [최한기 : 심 - 지각 활동 주관]과 같은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늘 말하지만 [비교]하면서 읽을 때는 [차이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통점] 역시 가벼운 선지로 빈출되니 항상 체크해두도록 합시다.

⑤ -> 지문에 따르면 [아담 샬 -> 주세균징 ->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음], [흡슨 -> 전체신론 -> 무한 소급의 문제 ->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 /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했죠. 따라서 두 서적 모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18번 : ③

->3문단에서 제시된 큰 흐름에 대해 묻는 문제였죠. 3문단을 읽으면서 [서양 의학이 이익 이후에도 미미한 원인 -> 나열]과 같은 형태를 파악했다면 빠르게 읽어주시고 물어보면 돌아와서 체크해주셨으면 됩니다. 정답은 ③이 되겠죠.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없죠. 지문에 따르면 [서양 의학 ->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비껴나 있었음]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 ① ->3문단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에서 확인 가능해요.
- ②,⑤ ->3문단 [당시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음]에서 확인 가능해요.
- ④ ->3문단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에서 확인 가능해요.

19번 : ③

->지문의 [최한기]의 주장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서 그에 부합하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죠.

ㄱ. [심장 = 오장의 하나]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라는 거죠. 다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기존의 심주지각설의 해당하죠. 다만 최한기는 이러한 기존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심주지각설의 심 -> 신기의 심 -> 지각 활동을 주관]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ㄱ은 최한기가 아니라 이익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X)

ㄴ. <보기>의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 보고 들음(=감각)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6문단의 [신기는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와 같은 최한기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적절해요. (O)

ㄷ. 6문단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적절해요. (O)

ㄹ. 6문단을 보면 [신기 -> 한 몸을 주관하며 ->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이라고 했죠. 따라서 신기가 [대소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고도 볼 수 없죠. [신기]가 [한 몸을 주관]하는 거죠. 인과 관계의 도치를 통한 오답이네요. (X)

20번 : ②

->[최한기]와 [데카르트]의 견해를 비교하는 유형이죠. 인문, 철학 등과 같이 [주장]이나 [이론]이 제시되는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최한기 <-> 데카르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선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읽어주셔야 해요.

- 데카르트

1. 물질과 정신을 구분 -> 물질은 공간을 차지 / 정신은 - 사유(=지각)
2.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함 -> [물질인 두뇌 + 정신이 있음] ->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
3. 정신과 물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죠.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두뇌가 사고 작용을 주관한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사유를 주관]하되, 그러한 정신이 [물질인 두뇌]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한 거죠. 데카르트에게 [두뇌(=물질) <-> 정신(=사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한편 최한기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 작용]을 주관하는 것은 [신기의 심]이고, [두뇌 -> 몸의 활동]을 주관하는 거죠.

- ① ->6문단 [최한기 ->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에서 확인 가능하죠. 최한기에게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며, 몸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신체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반면 데카르트의 [정신]은 [두뇌 - 물질]과 구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해요.
- ③ ->최한기는 '신기'가 형체가 없다고 했고, 데카르트는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과 구분되며 그러한 두뇌에 갇들어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최한기의 '신기'와 데카르트의 '정신'은 모두 그 자체만으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 ④ -><보기>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는 물질의 개념으로, 사고는 정신의 개념으로 구분했고 둘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둘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죠. 반면 최한기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를 주관하는 것은 [신기의 심]인데, 그러한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한다고 했죠. 따라서 최한기는 데카르트와 달리 인간의 사고와 신체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신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비판을 받지 않겠네요.
- ⑤ ->데카르트 역시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기 때문에 무한 소급에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최한기는 이러한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원인으로 [신기의 심]을 상정했죠. 따라서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적절해요.

21번 : ⑤

->[맹신하다 =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죠. 하지만 [가리다 =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어휘 문제를 진짜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푸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은 어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풀겠죠. 따라서 평소에 어휘를 공부하실 때 [사전적 정의]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관련된 예문을 많이 접하면서 어휘에 대한 이미지를 풍부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유입되다 =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오게 되다]
- ② ->[제시하다 =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 ③ ->[전파하다 =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
- ④ ->[수록되다 = 책이나 잡지에 실리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26번]

[지문 분석]

1문단

①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②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③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①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②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 (임대인) =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③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 (간단한 파손은 /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 (내용)을 /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내용 자체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Q를 던지고 그에 대한 A를 2가지로 제시했죠.

-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을 때 -> 누가 고침?

1. 민법전의 법조문에 따르면 -> 임대인 =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
2. 계약서에 따라 -> 세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내용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늘 말하듯 [어떻게 화제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사례]일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의 초반의 사례를 준다든 것은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화제]를 제시할 겁니다. 이 사례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임대인 <-> 세입자]가 아니라 [법률 <-> 계약]이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④ **이처럼(=앞 사례)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 (문제)가 / 발생한다.**

-> 1문단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자, 이 글의 화제를 구체화한 문장이었죠. [이처럼]을 통해서 앞 내용과 연결지어 읽어줘야 해요. 결국 앞에 제시한 사례는 예측했던 대로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④에서는 그렇게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 계약] -> [1. 어떤 것이 우선 적용? / 2.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와 같이 화제를 구체화 한 거죠. 따라서 다음 문단부터는 그러한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제시해줄 가능성이 높은 글이네요.

즉 여러분들에 말에 따른 [Q->A / P->S]의 구조가 되겠죠. 다만 그런 걸 파악하는 것보다 실천적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법률과 계약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가?]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로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쪼개서 파악해주는 거였어요. 늘 말하지만 문개서 읽지 마세요. 제발.

1문단 정리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 -> 발생하는 문제점 2가지 -> 1. 무엇을 우선 적용? + 2.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2문단

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 된다. ②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된다. ④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① 사법은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쉬운 문장들이었지만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했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⑤문장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핵심은 [사법 =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가 아니죠. [사법의 영역에서는 ->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 됨]이죠. 정확하게 쪼개서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사법의 영역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을 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선행 개념을 바탕으로 앞서 던진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죠. 아마도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가]에 대한 답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구요.

③ **따라서 당사자들이 /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④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 이 문장이 중요했죠. 즉 앞 문장들에서 [사법 ->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 됨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1문단에서 구체화했던 화제인 [법률 조항과 계약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1.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
2. 사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됨
3.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음
4. 1~3에 따라서 -> [사법 -> 법률 vs 계약인 경우 ->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됨]
5. 1~4와 같이 [법률 규정 존재 -> 그래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함]

여기까지 읽으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법 정의 -> 사법에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 -> 그에 따라 계약 내용이 우선됨 -> 이렇게 법률과 어긋나는 계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임의 법규'라고 함]과 같아요.

⑤ 사법은 /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 ⑤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요. 대부분 그냥 뭉개버리고 넘어가요.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④에서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 = [임의 법규]임을 제시했고, ⑤에서는 그러한 임의 법규

가 인정되는 영역인 [사법] **역시** [임의 법규]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즉 [사법 = 임의 법규] -> [사법의 영역에서 -> 계약 자유 원칙 인정 ->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만약 사법 영역에서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이 사법에서 정한 내용을 달리 계약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사법 = 임의 법규]를 따른다는 것이고, 만약 계약으로 정한다면 그 계약이 우선된다는 거죠.

[사법 = 임의 법규] + [사법 영역 -> 계약 자유 원칙 인정]

1. 사법 -> 법 규정과 다른 계약 내용 O -> 계약 우선 적용
2. 사법 -> 법 규정에 대해 달리 계약 X -> 임의 법규인 사법을 따름

과 같이 정리가 되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뚱개면서 읽겠죠. 꼭 정확하게 쪼개 읽고, 분석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면 뭐가 문제였을지 꼭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2문단을 정리하면 1문단에서 던진 [무엇이 우선 적용? -> 계약이 우선 적용]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문단이었죠. 따라서 아마도 다음 문단부터는 [불이익은 없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겠죠.

2문단 정리

[법률 VS 계약 -> 1. 무엇을 우선 적용? -> 계약 우선 적용]

3문단

①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②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③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④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⑥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 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①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 당사자들에게 /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2문단에서 [법률 vs 계약 -> 계약 우선 적용]과 같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설명한 후에 3문단부터는 두 번째 문제인 [법적 불이익이 있는가?]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화되는 거죠. 다만 잘 쪼개 읽었다면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와 같이 세부적으로 또 나누게 될 거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해요.

②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③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 ①에서 제시한 [불이익 + 법적 효력 부정]과 관련해서 "우선" [불이익은 O -> 법적 효력은 유지 O]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주목할 발문은 [우선]이죠. 아마도 다음 문단들에서 [불이익 +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단서가 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정리하면 [법률 vs 계약 -> 불이익O + 효력O -> 단속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줬으면 됩니다. 또한 아마도 뒤에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만 말해주면 왜 그런지, 어떤 경우가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④ (공인 중개사가 /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⑥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 공인 중개사는 /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 고객은 /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읽지 말고 ④~⑥의 내용이 [법규 vs 계약 -> 불이익O + 효력은 O -> 단속 법규 -> 단속 법규의 사례 제시]라는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읽으셨으면 좋았겠죠. 늘 말하지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왜 제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법률 VS 계약 -> 2. 불이익은 있는가? -> 불이익O + 효력O -> 단속법규]의 사례

1.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 = 단속 법규
2. 이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됨 = 법적 불이익 O
3. 다만 [계약에 따른 행동 = 급부]는 인정 = 계약의 효력 O

여기까지 해서 2번째 문제 / 질문인 [불이익은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제시가 되었죠. 다만 아까 [우선]이라는 발문을 쪼개서 파악해줬다면 아마 다음 문단에서도 [불이익 + 효력]과 관련해서 해당 문단의 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제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다면 좋았겠네요.

3문단 정리

[법률 VS 계약 -> 2. 불이익 있는가? -> 불이익O + 효력O = 단속법규]

4문단

①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 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③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①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 되지 않아 /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 '강행 법규'라고 한다

->3문단에서 [불이익O + 효력O -> 단속 법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한 후 4문단에서는 [불이익O + 효력X -> 강행 법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흐름인 걸 파악했으면 좋습니다. 아마 똑같이 다음 문장들부터 구체적 설명과 예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겠죠.

③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3문단과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독해속도를 내려고 하셨다면 요 문장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추가적인 생각들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해요. [강행 법규]에서는 [효력X -> 급부 이행X]인데, 만약 그러한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정리하면 [강행 법규 -> 불이익O + 효력X ->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 그러한 이행을 통한 재산적 이익은 부당 이익에 해당 -> 따라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과 같은 흐름이네요.

④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 [강행 법규]이다. 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죠? 내용적인 이해 말구요. 그래요. 앞서 말한 [강행 법규 -> 부당 이득 청구권 반환 인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내용 자체는 3문단과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해당 지문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되는 정보들은 [기준]을 잡고 잘 분류해가면서 읽는 거였어요. 머리로 처리가 안 되면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읽고 실천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문단에 무슨 내용이 올지 정확하게 몰라요. 만약 제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오겠죠]라고 말하면 사후적인 해설이죠. 제시된 단서나 지표가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다음 문단에 가서 첫 문장을 읽고 그걸 파악해주셨으면 됩니다.

4문단 정리

[법률 VS 계약 -> 2. 불이익 있는가? -> 불이익O + 효력X = 강행 법규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O]

5문단

①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①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주화만 잘 시켜줬다면 어렵지 않은 정보들이었어요. 4문단에서 [강행 법규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O]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5문단에서는 같은 세부 흐름 속에서 [강행 법규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X]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5문단을 읽고 [비도덕적 or 반사회적 -> 급부 이미 이행 -> 부당 이득 청구권 인정X]정도로 정리가 되었으면 완벽합니다요.

5문단 정리

[법률 VS 계약 -> 2. 불이익 있는가? -> 불이익O + 효력X = 강행 법규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X]

여기까지 읽고 글이 잘 범주화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구조가 잡혀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쳐 내고 큰 흐름만이라도.

법률 VS 계약 -> 1. 우선 적용? -> 계약 우선 적용 -> 임의 법규  
-> 2. 불이익 있는가?  
- 불이익 O + 효력 O = 단속 법규  
- 불이익 O + 효력 X = 강행 법규  
- 부반청 인정O  
- 부반청 인정X

6문단

①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②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③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②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③ 이로 인해 /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은 어렵지 않았어요. 1문단에 제시한 질문, 문제 대해 각 문단에서 3가지 경우로 나눠 답, 해결책을 제시한 한 후에 [2~4문단에서 제시된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목적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개입을 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한다 = 비례 원칙]이 적용됨을 제시하고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글을 읽어나가는 핵심은 1문단에서 명확하게 구체화된 화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경우를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정보를 범주화하면서 읽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줬다면 정보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만약 그냥 막 읽었다면 뭘 읽는지도 모르고 읽었을 것 같네요.

6문단 정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계약에 개입 -> 비례 원칙 적용]

전체 구조 정리

1문단 - 계약 VS 법률 -> 1. 우선 적용? + 2. 불이익?  
2문단 - 1. 우선 적용? -> 계약 우선 적용  
3문단 - 2. 불이익? -> 불이익O + 효력O  
4문단 - 2. 불이익? -> 불이익O + 효력X -> 부반청O  
5문단 - 2. 불이익? -> 불이익O + 효력X -> 부반청X  
6문단 - 개인의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 -> 비례 원칙 적용O

22번 : ③

-> [단속 법규 / 강행 법규]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죠. 무난한 선지였어요.

①  
->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이라는 선지의 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해요. 지문에서 [사법] 역시 임의 법규에 해당한다고 했죠. 따라서 [사법]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이라는 소리고, 그 중에서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어요. 돌아가서 찾으면 안 되는 정보였어요. 2문단의 핵심 흐름이었으니까요. 만약 돌아가서 찾았다면 지문 독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 무엇을 놓치고 읽었나 꼭 확인하도록 해요.

②  
-> 단속 일대일 대응으로 찾기 힘든 선지였죠. 정의된 개념인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죠. 2문단에 따르면 [계약 자유 원칙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에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임의 법규 =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니까요. 단속 법규는 그러한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 원칙에 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④  
-> 적절하죠. 국가가 개인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필요한 만큼 ->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줘야죠. [단속 법규]와 [강행 법규] 중 단속 법규가 국가의 개입이 더 최소이며, 비례 원칙에 따르면 단속 법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강행 법규에 따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죠. 적절해요.

⑤  
-> 선지의 [급부의 내용에 따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해요. 그러한 급부 행위가 [비도덕적 or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는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 or 반사회적 행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23번 : ②

-> [A] 즉 1문단에서 구체화된 화제에 대해 적절히 이해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역시나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점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면서 처리해줬으면 됩니다.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얘기죠. 사법은 임의 법규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을 따르게 되겠네요. 또한 계약에서 그러한 수선의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법적 불이익은 계약에서 [법률 규정과 어긋난 계약 조항이 있을 때 존재]할 수도 있겠죠. 단속 법규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 같은 경우가요. oo. 어쨌든 법적 불이익의 존재 조건이 법률 규정과 다른 계약 조항을 한 경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O)

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임의 법규인 사법을 따르게 될 것이고, 1문단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면 그러한 사법에 따랐을 때 수선의 의무는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 = 건물주)가 지게 되겠죠. 또한 그러한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ㄱ.에서의 설명과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X)

ㄷ.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 = 건물주]가 수선을 해야 하는데,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수선을 한다는 계약 조항을 추가했다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세입자]가 수선을 할 의무를 지게 되겠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1문단의 사례는 [단속 법규]나 [강행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조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누구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겠네요. (O)

ㄹ.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세입자가 수선할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해당 조항은 단속 법규나, 강행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X)

-> 따라서 [ㄱ, ㄷ]이 적절하겠네요.

24번 : ①

-> 너무 쉬운 문제였죠. 틀리면 안 돼요. 늘 나오는 패턴이고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읽었다면 바로 답을 골랐어야 해요.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은 [구분 / 비교]되는 것들을 읽을 때 [차이점]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가원은 늘 [공통점]을 건드리니까 그것 역시 민감하게 반응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차이점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어떤 기준점]에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엮어서 범주화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 : 단속법규 -> 법적 불이익O + 계약 효력 인정 O  
㉡ : 강행법규 -> 법적 불이익O + 계약 효력 인정 X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 O

이므로 ㉠과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②,③,④  
-> 모두 ㉠에만 해당하는 선지들이죠. 강행 법규는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급부 의무가 역시 인정되지 않는 거구요. 또한 ㉡에서의 급부 이행을 통해 넘어간 재산적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⑤  
->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약 당사들은 [자유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한 계약 조항이 법률 조항과 어긋날 경우 ㉠과 ㉡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25번 : ③

-> 지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죠. <보기>를 읽고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정보는 뽑아낼 수 있었어야 해요.

1.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 농지법 위반 -> 법률 조항과 어긋난 계약을 한 것
2. 벌금이 부과 = 불이익이 부과 됨 -> 단속 or 강행 법규
3. 계약이 무효 -> 강행 법규
4. 반환 해야 함 -> 강행 법규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 -> 그 말은 농지법을 위반한 정도는 [반사회적 or 비도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 <보기>의 사례를 잘 읽었다면 [불이익 + 효력 무효]와 같은 국가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하죠. 즉 [강행 법규]라는 걸 파악했어야 해요. 따라서 [벌금 부과만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 부족 ->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는 것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①  
-> 사법의 적용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법의 규정에 어긋난 계약 조항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했어요. [불이익 + 효력 무효]와 같이요. oo

②  
->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과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죠. 중요한 선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면 선지를 쪼개 놓고 파악하면 [국가에서 B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도 맞고, [국가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서 -> 법적 불이익을 주었다]와 같은 인과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④  
->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죠. 애초에 선지 자체에 모순이 있는 선지이며, <보기>의 농지법 위반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⑤  
-> 부당 이득에 해당하니까 반환하라고 청구한 게 되겠죠. :)

26번 : ㉔

-> [㉔ =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이므로 ㉔와 문맥상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헛갈렸다면 ㉔정도가 헛갈렸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서술어 자체에 대한 정의보다 객체, 즉 부사어나 목적어의 문맥상의 의미도 잘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㉑

->[지다 = 어떤 형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㉒

->[지다 = 신세나 은혜를 입다]

㉓

->[지다 =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

㉕

->[지다 = 물건을 짊어서 등에 엮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31번]

[지문 분석]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쓸쓸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험(流血)은 꿈같이 가고 /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 아워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울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보기>가 없었어요. EBS연계 작품이라 그랬던 것도 있지만, <보기>가 없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재적 감상**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거죠. 즉 작품에 드러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인과 수준의 감상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기>라는 일관된 준거 틀 없이, 주관의 영역인 감상에 대해 묻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들로 선지를 구성해야 해요. 즉 그러한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감상을 통해 [허용 범주]내에서의 적절한 선지를 판단하고, [명시적 오답 발문]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지워주셨으면 됩니다.

또한 <보기>가 없다면 [제목]을 확인하고 작품을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감상의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1학년도 기출에 따르면 [제목 - 1. 시의 제재 / 2.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목을 읽고 나서 그 시의 [제재 or 주제의식]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목]에 등장하는 것들이 시 속의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외부 세계 = 시적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휴전선]이라는 제목을 읽고서 [화자 -> 휴전선을 인식 -> 어떠한 반응?]일까 정도의 방향성을 잡고 들어갔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네요.

1연

-> [화자 -> 휴전선 인식]에 맞춰서 읽어줬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화자 -> 휴전선에 핀 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산과 산 /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등에서 [남 <-> 북]정도를 뽑아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또한 [천동 같은 화산]이 [전쟁]이라는 것을 파악했으면 준수하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상황이자 화자가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정도로 파악했어도 무방합니다. 정리하면 1연을 읽고 [화자 -> 휴전선의 꽃을 인식 -> 안타까움 / 불안함]정도만 파악했어도 준수합니다.

2연

-> 2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죠. 결국 하나의 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1가지니까요. [서로 응시하는 쓸쓸한 풍경 -> 남북의 상황 같은데, 쓸쓸하다고 했으므로 역시나 부정적인 느낌] +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 과거에 이야기, 아마 분단전,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 말 그대로 별들이 있는 하나인데, 화자가 있는 남북의 상황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하나가 아닌 상황]정도의 생각이 드는 게 현실적인 감상일 것 같네요. 2연을 정리하면 [화자 -> 쓸쓸한 휴전선의 풍경 -> 과거, 하늘의 모습과는 다른 현재의 상황 -> 불안함, 안타까움]정도가 되겠죠. 결국 1연과 같은 흐름이에요.

3연

-> [모든 유험이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 유험은 아마도 전쟁을 의미하고, 현재는 그러한 전쟁은 지났지만 나무 하나 안심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 불안한 상황],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 -> 분단된 상태 + 휴전 상태], [아워어 가는 이야기 -> 앞에 나온 신라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것이며, 뭔가 정맥이 끊겨서 아워어 간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 현재의 휴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정도의 감상이 현실적인 것 같네요. 3연을 정리하면 [화자 -> 휴전선 근처 광장(의 나무) -> 불안함, 안타까움]정도가 되겠죠.

4연

-> 쪽 읽고 나서 결국 [화자의 정서 = 불안함]이고, 그러한 정서가 촉발되는 이유가 [불고야 말 징그러운 바람]인데, 1연의 [화산]과 비슷한 의미일 것이고, 아마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정도로 파악했으면 좋았겠죠. [휴전의 상황 -> 믿음이 없는 얼굴 -> 닥쳐올 부정적 상황? -> 아마도 전쟁]일테니까요. ○○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휴전선의 피어난 꽃을 보면서 화자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연

-> 수미상관으로 1연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요. 어렵지 않아요. 결국 이 시를 수험장에서 읽고 나서 읽기 전 제목을 통해 세운 방향을 바탕으로 [화자 -> 휴전선 인식(꽃, 나무, 광장) -> 안타까움, 불안함]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체화된 감상에서 판별만 해주도록 합시다. 제발.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분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펙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 <보기>의 내용에서 다 봤어요. 내재적 감상 중 조금 더 함축적인 부분, 즉 주관의 영역을 건드리기 위한 준거 틀을 제시해준 거죠. <보기>를 잘 읽었다면 [화자 -> 우포늪 왁새 소리를 인식 ->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림] 정도의 방향은 잡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또한 [제목]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성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으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 <보기>에 있던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소리꾼]에 대해서 화자가 상상하는 부분이죠. 다만 주의할 부분은 화자가 현재 실제로 그러한 사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 정도를 해줬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외부 대상인 [우포늪 왁새]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나오겠다 생각 정도를 추가로 해줄 수 있다면 매우 준수.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지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 울음 되어 우항산 술발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연영 꽃뿔 질러 놓는다**

-> 여기서 방향성이 맞다고 확신했으면 됩니다. [화자 -> 우포늪 왁새 울음 소리를 들으며 -> 소리꾼을 상상]이겠죠. 그렇다면 우포늪 왁새의 울음 소리는 화자에게 내면화되어 [소리꾼]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고, 화자는 아마도 [우포늪 왁새 = 소리꾼]을 동일시 여기는 게 되겠죠. 교과서 개념에 따르면 세계의 내면화, 자아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업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늙 뒷산 술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소리꾼이 생전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회상이 되겠죠. 아마도 소리꾼은 살아있을 때 근본마저 알 수 없던 혈혈단신이었을 거고, 슬픔의 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또한 그러한 소리꾼이 늙은 고수라도 만날 때는 같이 산을 흔들 정도의 창을 했나보군 정도의 감상이면 준수합니다. 또한 그렇게 소리꾼이 생전에 찾던 소리를 화자는 현재 자신이 듣고 있는 우포늪의 맑은 가락 속에 있다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결국 **[화자 -> 외부 세계이자 시적 대상인 우포늪 왁새의 울음 소리 인식 -> 소리꾼을 떠올림]**의 흐름이죠.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결국 큰 흐름은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앞에서의 연상을 통해서 [우포늪의 생명력이 ->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결국 (나)를 읽고 [화자 -> 우포늪 왁새(의 울음 소리)를 인식 -> 소리꾼을 떠올림]정도만 남았으면 괜찮습니다.

**27번 : ①**

->(가)는 [분단한 우리 민족의 모습 - 휴전선이라는 공간], (나)는 [소리꾼의 삶 - 우포늪이라는 공간], (다) [인간의 삶 - 오심암이라는 공간]과 같이 인간의 삶과 공간을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험에서 특히 [구체화 = 형상화]라는 어휘가 많이 나왔어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해요. **[형상화 = 형태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구체화)으로 나타냄.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른다.]**라는 뜻이죠. 즉 [주제 의식 ->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 형상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절해요.

②

->굳이 찾자면 (가)에서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의 모습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화자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였죠. 따라서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가)의 화자의 정서는 [불안함 / 안타까움]의 정서가 두드러졌으니까요. 또한 (나)와 (다) 역시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시험장이라면 (가)에서 [희망적 미래 예견]을 근거로 잡고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이상적입니다.

③

->역시나 (가)부터 걸리는 선지죠.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부정적 현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참여 의식을 표방]한다는 것을 명시적 오답 근거로 잡았으면 됩니다. (나)와 (다)는 애초에 큰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니다.

④

->이번에는 (가)에 해당 선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명시적 오답의 근거로 잡고 소거해줬으면 됩니다.

⑤

->(가)와 (나)에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빠르게 소거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다)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에서 확인 가능해요.

**28번 : ③**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모두 적절하지 않죠.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기 위해서는 시의 각 부분에 시간의 지표들이 있어야 해요. 즉 시가 전개되어 가면서 그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시의 발문 중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발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 점심 -> 저녁], [해가 저물어가면서, 어둠이 깔리면서]와 같아요. 하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지표나,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발문이 없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나)에서 **[시선의 이동]** 역시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변화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게 [외부 세계의 대상]간의 이동이 되었던, [외부 -> 내면 세계 / 내면 세계 -> 외부 세계]로의 이동이 되었든 말이죠. 하지만 (나)에서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우포늪 왁새]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 이동에 따라 ->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기존 기출에 따르면 [시선의 이동에 따라 -> 시상이 전개]가 적절한 경우에는 시가 전개되어 가면서 [A -> B -> C]와 같이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들과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①

->(가)에서 [~ㄴ 인가, / 는가] 등과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설의법이 사용되었고, 설의법은 수사(의문문)으로서 영탄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에서는 각 연에서 그러한 설의법의 활용을 통해 [분단에 대한 안타까움, 불안함, 분단 극복에 대한 소망]등의 정서가 드러내고 있었죠. 따라서 설의적 표현으로 (분단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②

->[청각의 시각화]는 [공감각적 심상 -> 감각전이]에 대해서 묻는 거죠. 개념에 자료에 잘 정리해주었으니 꼭 참고하시도록 해요. (나)의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술발을 다 적시고]**에서 확인 가능하죠. **[한 대목 절창 -> 폭포 물줄기로 내리친다]**라고 표현했으므로 [청각의 ->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소리꾼이 찾아다니던 그러한 절창을 **[오늘은 왁새 울음이 되어 -> 술발을 다 (폭포 물줄기와 같이)적시고]**라고 표현했으므로 이 역시 [청각의 ->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수험장에서는 잘 안 보였다면 다른 선지들 먼저 소거하고 판단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④  
->(가)에서는 시구를 찾아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수미상관이 쓰였으니까요. 수미상관을 활용하면 당연히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나)에서는 [소리꾼]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부에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주제의식을 찾자면 (가)에서는 [분단된 민족의 현실]정도가 될 것 같고, (나)에서는 [우포늪의 생명력]정도가 될 것 같네요.

⑤  
->중요했던 선지였어요.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해당 선지는 당연히 적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자연물? 맞아 아닌가?]가 아니라요. 시에서 인공물을 모든 외부세계는 자연물이며 대부분의 시에서 자연물은 시적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나요. [시 =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과 같아요. 즉 자연물이 드러나지 않는 시는 거의 없어요. 또한 화자는 그러한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를 통해서 표현하죠. 따라서 [화자의 인식(=내면)을 자연물(=외부세계 = 시적 대상)에 투영하여 ->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는 선지는 대부분의 시에서 적절할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고2 문학 교과서에서 시에 대해 가장 처음 배울 때 드러나 있는 개념입니다.

29번 : ②

->있는 그대로 감상했다면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준거 틀인 <보기> 없이 감상을 묻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감상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니까요. (가)에서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 끝끝내 하나인데]이므로 하나로 이어진 세계로 판단하기 충분하죠. (나)에서는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이므로 [흙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죠. 적절해요.

①  
->(가)에서 [천둥 같은 화산]은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어질까봐 화자가 불안하게 여기는 상황이죠. 따라서 선지의 [초래할]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고, [초래할]로 바꾸어야겠죠. (다)에서는 선지의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 -> 암울한 심정]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이는 (다)의 [검은 절경의 성장 -> ~~ ->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이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화자는 검은 절경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암울해하지도 않아요.

③  
->우선 (가)에서 선지의 [끊어진 정맥 ->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가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가)의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 휴식인가 아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를 보면 [아직도 끊어진 채 -> 휴식인가 + 아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 이겨냈다고 보기 힘들 -> 삶의 의지도 X]의 논리 정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따지면 [분단된 현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환기]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또한 (다)에서도 [찬기 -> 절망감을 환기]가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중략) 이후를 보면 [찬기는 어느새 ->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함]하는 것이지 절망감을 환기하지는 않죠.

④  
->(가)에 대한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다)의 [미친 바람 =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은]것으로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죠. 아마도 [맑음 + 깨끗함]과 같은 특성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⑤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바위] = [지나온 과거를 망각 -> 삶을 회회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죠. (다)의 (중략) 이후를 보면 [차디찬 바위위에 신발을 벗고 ~ 눈을 감으니 -> 끝없는 망각이 '나'의 마음 + 우주를 채움]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애초에 사실 관계가 불일치하죠. 바위가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바위에서]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는 거죠. 늘 말하지만 [주어와 서술부], [주어와 객체]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해주셔야 해요. 주관적인 영역인 문학에서 명시적 오답 발문을 구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니까요. :)

30번 : ⑤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대비], [사실적]이 명시적 오답의 발문이 되겠죠. 수험장에서는 [대비]만 판별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했다면 [화자 -> 우포늪 왓새 -> 상상적으로 소리꾼을 떠올림]의 상황이었죠. 따라서 [날아가는 왓새]와 [소리꾼]은 화자에게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봐야겠죠. 또한 [사실적] 역시 <보기>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아요. [E]를 보면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의 영혼의 심연 ->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줌 = 사실적 묘사]는 아니죠. [사실적 = 있는 그대로 보여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면 [우포늪 왓새가 -> 하늘을 선회하며 -> 운다]정도가 될 텐데, [E]는 해당 부분을 화자가 내면화해서 [상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니까요. 과거 기출을 통해서 [사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세웠다면 쉽게 소거할 수 있었어요. 과거 기출에서 [사실적, 객관적]이 문학 영역, 특히 그 중에서도 [시]에서 적절했던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당 문제가 오답률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 감상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선지를 <보기>라는 준거 틀에 따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늘 말하지만 감상은 <보기>의 방향성에 맞춰 가능한 만큼하고, 구체화된 선지로 와서 [허용 범위]내에서 적절한 선지를 논리적으로 판별하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명시적 오답 발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결국 문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능까지 여러분에게 문학은 어려울 겁니다. 제발. 관점을 전환하십시오. 수험장 들어가서 깨닫지 말고, 제발.

①  
->[A] 앞부분에서 소리꾼에 대해 상상적으로 제시한 뒤, [A]에서 그러한 소리꾼이 [오늘은 우포늪 왓새 울음 되어 -> 술발 적심 + 우포늪 둔치 ~ 꽃불 질러 놓는다]와 같이 표현했으므로 [왓새 울음 + 우포늪 풍경 ->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②  
->[B]를 잘 읽었다면 어려울 수가 없는 선지죠. [B]의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업을 흔들곤 했다] + <보기>의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을 연결해 판별해졌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선지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비애를 ->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인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애라는 관념적인 정서를] -> [감각적으로 표현 = 구체화 = 형상화]했다는 말이죠. 이번 문학 <보기>, 선지들을 잘 보시면 [형상화, 구체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

③  
->[C]를 보면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설의법 -> 영탄법 -> 화자의 정서 :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혹시나 [정서 = 슬픔, 기쁨]등과 같은 감정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능에서 말하는 [정서]의 허용범주가 너무 좁게 설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탄 / 반성 / 깨달음 / 다짐 / 의지] 등 화자의 내면 작용 자체가 정서라고 판별해주시면 됩니다.

④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새피런 물살 몰아칠 때 = 현실적 공간] +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 상상적 세계]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석]을 주었다는 거죠. [동편제]라는 것에 대한 주석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동편제를 넘어가는 왓새] = [상상적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세계]라고 해서 꼭 어떤 공간이나 넓은 범위라고 생각했다면 안 돼요. 늘 말하지만 [시]에서 [세계]란 화

자를 둘러싼 모든 것에 해당하며, 모든 시적 대상이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새가 -> 판소리의 한 유파인 동편제를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상상적 세계]라고 판별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목 장재 토평마을 ~]과 같은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는 [결부]라는 선지의 표현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결부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넓은 범주의 선지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인 교수님들이 수험생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깊은 이해를 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31번 : ④

->선지의 [인간의 삶에서 -> 자연이 =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가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지문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일대일 대응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하늘이 아득히 높음 -> 그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즉 자연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①

->(다)의 [질은 단풍에 붉게 누렇게 물든]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선지는 [감각적 표현 + 계절적 배경]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선지에 해당하죠. 두 개념은 모두 문학에서 빈출되는 개념이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강생분들은 개념어 자료에 다 정리해놨어요.)

②

->(다)의 [질은 단풍 ~ 구름 조각 -> 이것은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흥진(=속세,인간)에게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어 놓음]을 통해 작가는 [자연 -> 매우 아름다움 + 겸손함 ->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다)의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의 예술을 [장하지도 않은 것 + 인간은 겸손하지 않음X]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술의 극치(=자연의 모습) <->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인간의 예술)]을 대비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죠. 적절해요.

③

->선생님의 발화인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 ->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냄]에 따라 감상한다면 [자연 -> 겸손하고, 순결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⑤

-> 선지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떠올림]은 성찰을 통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적 태도 = 성찰을 통한 반성]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별해주셨으면 됩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2~34번]

[지문 분석]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하마르는  
 (서경이 서경이 서울(=수도)이지만은 -> 화자가 사는 삶의 터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닭은 곳인 소서경 사랑합니다마는 -> 화자가 사는 삶의 터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브리시고  
 (여의기보단 = 이별하기보단 길삼베(=생업) 다 버리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사랑해주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긴히쎌 아즐가 긴히쎌 그츠리잇가 나눈(=끈이 끊기겠습니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즘논 히를 아즐가 즘논 히를 외오곰 녀신들(=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믿음이 그치겠습니까 -> 믿음이 그치지 않을 거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죽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측루(鬪樓) \* 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거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머무섯 솟아올라  
 7을 들 불근(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 \* 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 \* 이 님의 옷에 빗치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울러  
 고결(高潔)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져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배)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가고싶다)

- 조위, 「만분가」 -

\* 공산 측루 :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 베갯머리.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 작품 자체들은 친숙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의 현대어 번역을 거의 달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고어 자체는 (나)보다 (가)가 더 번역하기 어려웠으나 (가)에서는 그러한 각주를 달아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서경별곡]은 고교 과정 내에 있는 작품입니다. 즉 고2 문학 교과서만 펼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 EBS연계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을 달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한 게 [EBS 수특, 수완]에 실린 고전시가는 현대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가)가 현대어 번역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은 반드시 9평전에는 연계교재에 실린 모든 고전시가 작품들은 현대어 번역 정도는 완벽하게 해두시고 들어가길 권합니다.

결국은 (가)와 (나) 모두 [화자 -> 부재한 임, 이별한 임 -> 그리워함, 보고 싶음, 슬픔]가 드러나는 작품이었어요.

32번 : ④

->번역이 되어야 풀 수 있는 선지였죠. (가)의 [좃니노이다]는 [괴시란데 = 임이 사랑해준다면 -> 길삼베 = 생업을 다버리고 -> 울면서 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이고, (나)의 [빗치어든]은 [한이 뿌리고 눈물로 가지 삼아 -> 님의 집 창밖에 외나모 매화되어 -> 설중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 달밤에 비치는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빗치어든 -> 어엿븐 이 얼굴(화자)을 너로다 반기실가(임이) -> 임의 집 앞 매화가 되어 그림자로라도 임을 비추고 싶은 소망]이므로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①

->(가)에서의 [서울 = 화자의 거주 공간 = 다만 임이 사랑해준다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적절해요. 다만 (나)에서의 [건덕궁 = 화자가 가길 소망하는 공간 = 이별한 임이 있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현재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②

->(가)의 [질삼뵈 브리시고 -> 괴시란데 우러곰 좃니노이다]를 번역하면 [길삼베(당시 여성들의 생업을 의미)를 버리고 -> 사랑해주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정도의 의미이고, (나)의 [빈 낙대 빗기 들고 -> 건덕궁으로 가고 지고]를 번역하면 [빈 낙시대를 빗겨들고 ~ 건덕궁으로 가고 싶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삼뵈 = 화자가 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빈 낙대 = 건덕궁에 갈 때 빗겨들고 갈 것] 정도로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③

->선지의 [임의 심정]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죠. 문학에서 자주 건드리는 오답 유형이에요. [화자 <-> 외부 대상]를 통해 오답을 만드는 유형이죠. [우러곰]과 [슬피 우러]는 모두 (가)와 (나)의 [화자]의 정서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⑤

->(가)를 보면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 믿음이 그치리잇가 -> 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므로 임을 향한 화자의 믿음, 확신으로 봐야지 의혹으로 보기는 힘들죠. 한편 (나)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 임이 반시길가]라는 의미이므로 의문, 불안 정도의 정서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험장에서는 (가)를 통해서 명시적 오답 발문을 잡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33번 : ⑤

->[임과 재회한 순간]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나)에서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해 있는 상황이며 재회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연물에 자신을 투영해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거지 실제로 재회한 게 아니에요.

①

->(나)를 보면 [임자 없이 구닐다가 -> 금강산 학이 되어 ->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 가을 달 밝은 밤에 슬피 우러 ->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이므로 내용상 적절하며, [솟아올라]를 통해 [상승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상승 / 하강 이미지]는 반드시 [아래 -> 위 / 위 -> 아래]와 같은 방향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 기억해요.)

②

->(나)를 보면 [만장송 되어 ->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 님의 집 창밖의 외마노 매화되어 ->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이죠. 이는 입과 이별해 있는 화자가 [만장송 / 매화]와 같은 자연물이 되어 서라도 입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따라서 두 소재를 활용해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표상하다 =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이며, [표상 = 심상 =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 -> 님의 귀에 들리거나], [두어 소리 -> 슬피 우러 -> 님의 귀에 들리기도]에서 확인 가능하죠. 당연히 [소리]이기 때문에 모두 [청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며, [화자 -> 님]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소리이므로 선지의 [입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④

->지문을 보면 [한이 뿌리 되고 + 눈물로 가지 삼아] -> [님의 집 창밖의 외마노 매화 되어]라고 했으므로 [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정서를 [매화의 뿌리 + 가지]로 [형상화 = 구체화 = 감각화 =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34번 : ②

->[신]과 [붉은 마음]은 화자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인데, 그걸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한 게 아니죠. 굳이 [바위]에 대해서 해석하자면 [구슬이 -> 바위에 떨어져 깨져도 ->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바위]는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신 = 붉은 마음]이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끈]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①,③

->[구슬 -> 바위에 떨어져서 깨짐 -> 그러나 끈, 끈은 끊어지지 않음]이므로 [구슬 = 변할 수 있는 것], [끈, 끈 =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A]와 [B] 모두에서 [어찌 바뀌리오 / 그치리잇가]와 같은 설의법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③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④,⑤

-><보기> [‘서경별곡’의 제 2연의 여음구를 제외한(=⑥)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④)]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참 쉽죠잉.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42번]

[작자 미상 - 옹고집전]

-> 작품 자체는 친숙한 작품이고 발췌된 부분의 내용 파악도 어렵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 먼저 <보기>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들어갔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네요. 옹고집전을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보기>를 통해서 [참옹고집 <-> 짚옹고집(옹고집과 똑같이 생김)]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겠다는 것 정도만 파악했어도 첫 발췌 장면을 읽는 부분이 수월했을 것 같아요.

[앞부분 줄거리]와 같은 부분에서는 늘 등장하는 인물, 인물의 성격, 이전 장면의 주요 사건, 인물간의 관계 등을 제시해주므로 잘 읽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옹고집 : 성격이 고약한 부자], [가짜 옹고집이 등장],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 -> 갈등]정도를 파악하고 들어갔으면 수월했을 것 같네요.

(중략 이전 장면)에서는 [두 옹고집이 승사 가는 장면]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가짜 옹고집]이 자꾸 그 길에 [진짜 옹고집]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 만큼 둘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진짜 옹고집]의 [기가 막히고 열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와 같은 인물의 반응 역시 체크해줬다면 좋았겠네요.

(중략 이후 장면)을 읽을 때는 [왜 하필 중략 이전과 이후에 이 두 장면을 발췌했을까]를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중략) 이전에 두 옹고집이 승사를 가는 길이었고, (중략) 이후 장면은 그러한 승사에서 [가짜 옹고집]이 승소를 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진짜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였는데, 승사에서 이긴 [가짜 옹고집]은 집에 돌아와 곡식 등을 나눠주면서 [구차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에 대한 분노한 [진짜 옹고집]이 자신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서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에게 꾸짖음을 통해 [개과천선]하도록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고전 소설은 늘 말하지 않고 어어에서 막힌다고 겁 먹을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각주를 달아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전반적인 플롯, 즉 줄거리를 위주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39번 : ③

-> [A]부분은 [진짜 옹고집 <-> 가짜 옹고집]이 승사를 하러 가는 장면 +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짜 옹고집이 진짜인척 행세를 하는 장면이었죠. 그러한 장면에서 끝 부분을 보면 [진짜 옹고집]의 내면 반응이 제시가 되는데, 인물의 독백이나 발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열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 답답한 심정]와 같이 작품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서술되고 있었죠. 적절하네요.

①  
-> 승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죠. 지문의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기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승사하러 가는지라.]을 보면 승사를 하러 가는 원인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시되긴 하지만 그것은 짚옹고집이 참옹고집 행세를 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②  
-> 선지의 [상반된 예측]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에요. [A]의 끝부분을 보면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와 같은 반응이 드러나죠. 승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공통된 반응으로 봐야지 상반된 반응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④  
-> 선지의 [승사가는 이들 = 두 옹고집]이 되겠죠. 다만 [A]에서 두 옹고집의 대화는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옹고집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 역시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어요. 제시된 발화는 [짚옹고집 -> 승사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옹고집인 행세를 함]에 해당하므로 둘이 서로를 비방한다고 보기는 힘들습니다.

⑤  
->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하나 외양이 묘사되는 부분은 없었죠. 적절하지 않아요.

40번 : ③

-> [수상히 여기고 있다]가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만 본다면 해당 선지가 맞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뒤에 나타난 짚옹고집의 발화를 통해서 판별을 해줘야 하죠. 뒤의 제시된 발화를 보면 ["~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을 하다가 중장(=매)만 맞았으니 불쌍하다"]와 같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불쌍하니 데려오라고 하죠. 따라서 수상히 여기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한 그 뒤에 제시되는 사건까지 확인해줬다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꾸짖고 용서해 주기 위해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해당 문제는 [인물의 반응]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었어요. 이런 경우 반드시 주변 발문에 그러한 인물의 반응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①  
-> ㉠ 앞부분인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 승사 이긴 내력을 말하니 -> 처자나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에서 확인 가능하죠. 적절해요.

②  
-> ㉠ 앞부분인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 제한단 말 듣고 -> 분심으로 하는 말이]에서 확인 가능하죠.

④  
-> ㉠을 보면 적절한 설명이죠. 앞의 흐름을 이어준다면 참옹고집이 분심해서 ㉠과 같은 발화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마를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상황이니깐요. ㉠뒤에 제시된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난다]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의 참옹고집의 내면 반응이 되겠죠.

⑤  
-> [사환들이 가자하니 -> 갈 마음이 전혀 없다 -> 그래서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감]이므로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죠. 설명하기도 민망하네요. 너무 쉬워서. he

41번 : ①

-> 선지의 [승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선지에 제시된 뒷부분을 지문에서 확인하면 [짚옹고집이 승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자 -> 아내가 고생했다고 말함 -> 못 아들 나서며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고생을 하셨다)고 함 ->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과 같이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알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주죠. 따라서 소외되어 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짚옹고집]이 아니라 [참옹고집]에 해당하며, 이는 참옹고집이 승사에서 진 후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떠돌며 걸식을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⑤)

②,③,④  
-> 솔직히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 그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당 지문 + 제시된 <보기>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42번 : ④

-> [B]와 <보기> 모두에서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은 드러납니다. 다만 [B]에서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죠. 개과천선하라는 요구를 한 후 짚옹고집이 사라진 후 진짜 참옹고집이 개과천선하는 부분만 드러나죠. 또한 <보기>에서는 [개과요청]과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모두 등장하긴 하지만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선지에 제시된 것과는 반대로 <보기>를 보면 [용서를 구함 -> 개과요청]이니까요. 따라서 해당 선지는 [B]와 <보기> 모두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①,②,③,⑤  
-> 있는 그대로 선지를 쪼개 읽으시면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5번]

[양귀자 - 한계령]

->현대소설에서는 [장면]단위로 끊어가면서 해당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전 소설의 문항 구성이 주로 [줄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 시점, 각 장면에서의 인물의 반응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문항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읽으면서 [나 - 은자]라는 인물 관계를 세팅을 하고 [나 = 작가], [나'가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에게 연락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또한 [나]라는 표현을 통해 일단은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는 건 기본이 되겠죠.

[중략 이전 장면]을 읽으면서는 [은자 -> 나를 만나고 싶어 함], [나 -> 은자를 만나기 머뭇거리함]을 파악하는 게 내용상 가장 중요했던 것 같네요. 또한 [나]의 내면 독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중략 이후 장면]을 읽으면서는 [나 -> 은자를 만나고 싶지 않음 -> 결국 안 만나고 ->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음] 정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물의 행위,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해주는 거구요. [나]에게는 [과거의 은자 모습 = 고향에 대한 마지막 표지판 -> 나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인데, 현재의 은자를 만나면 그러한 표지판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은자를 만나려 가지 않은 거죠.

43번 : ①

->[나]라는 작중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했죠. 즉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서술의 초점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죠. 따라서 [독백적 진술 = 혼잣말하는 듯한 진술]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X / 삽화처럼 나열X / 흐름을 지연X

③ ->작품 내부의 서술자였죠. 적절하지 않아요.

④ ->서술자는 [나]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아요.

⑤ ->지문의 [이제 은자는 ~ 작정이었다 /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 ~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등과 같이 [나]라는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여기서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은자]정도인데, [은자]는 [나]에게 [고향에 대한 마지막 표지판]과 같은 존재이므로 반감이라고 볼 수 없어요.

44번 : ⑤

->(중략)이전 장면을 보면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 은자의 발화 :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와 같이 [은자]는 현재의 [밤무대 가수]인 자신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그러한 현재의 [은자]를 만나기를 머뭇거리고, 결국은 만나지 않아요. 이는 지문의 [은자만 떠올리면 ->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나]가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추억하고 있으며, 현재의 은자의 모습을 만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옛 기억들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①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가 명시적 오답 발문이죠. 성공을 확신하는 부분은 [은자]든 [나]든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② ->[나]는 오히려 은자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지죠. 따라서 [심리적 위안 -> 갈등 해소]는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오히려 전화를 받고 내적 갈등에 빠진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참고로 문학에서의 내적 갈등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불편한 심리 상태 -> 슬픔, 분노, 그리움, 고민, 불안 등]로 봐주시면 됩니다.

③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가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것은 아니죠. 지문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에서 알 수 있듯 고민하다가 가지 않은 거죠.

④ ->[나 -> 은자가 도도하다고 여김]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아요. [은자 ->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김]은 지문의 은자의 발화인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45번 : ②

->(중략) 앞부분에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즉 그들에게는 [인생 =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일 뿐이지,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 무엇이]은 아니죠. 따라서 선지의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까지는 맞지만 [탐구하고 사색하려는]이 명시적 오답 발문이 되겠네요. 늘 말하지만 어떤 깊은 감상이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사실 관계, 선후 관계,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명시적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장르인 문학에서 객관적인 오답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

①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함 <->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름] ->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③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④ ->[변해 버린 큰 오빠 <-> 온전히 남아 있는 큰 오빠] -> [모두 '나'의 기억 속의 공존] ->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⑤ ->[현재의 은자는 만나고 싶지 않음 <-> 하지만 전화는 기다림] ->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